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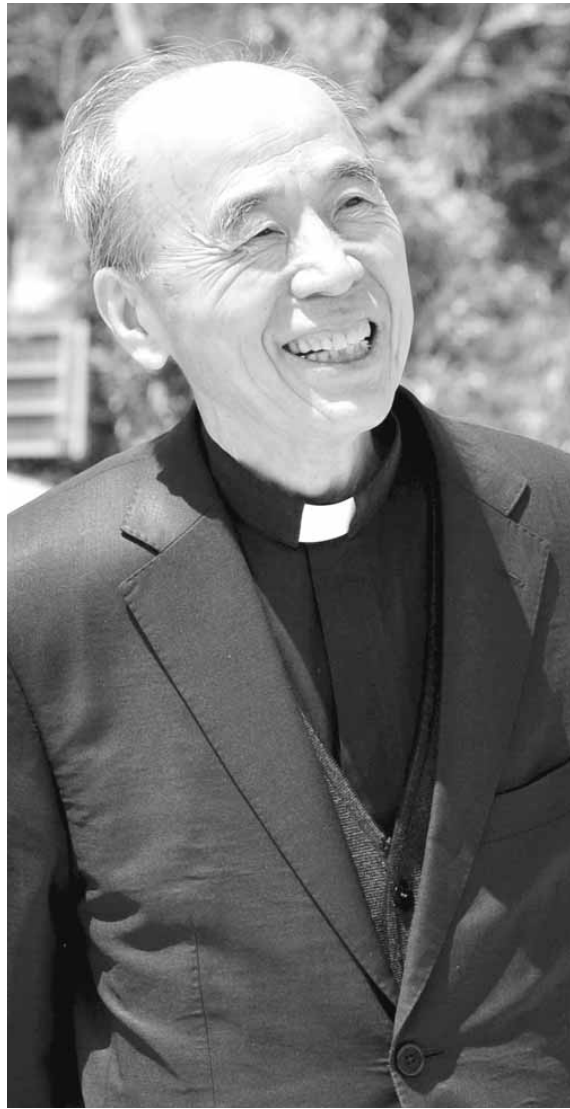
사제 수품 50년 최창무 대주교

# “지식 키우 듯 양심 키우는 사회 돼야죠”

2010년 천주교 광주대교구장에서 물러난 최창무(77) 대주교는 나주 노안성당 '베타니아'집에 머물고 있다. 9일 오후로 사제 수품 50년을 맞는 최주교를 인터뷰하러는, 그는 마을 어귀까지 마중을 나와 기자 일행을 반갑게 맞았다. 인터뷰 내내 웃음을 터뜨리는 그에게 “활짝 웃으시는 모습으로 사진을 찍으시죠”고 청했다. “주름이 많이 나오는데...”하며 환한 웃음을 지었다.

바흐와 피아노곡을 좋아하는 최주교는 남북문제와 사형문제 등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취했고, 세상사는 이야기를 나눌 때는 할아버지처럼 친근했다. 대화후 기자 일행을 나누어주는 데려 간 최주교는 인터뷰 자료를 챙기다 ‘원칙주의자’라는 인상을 받았다는 기자말에 “알고 보면 부드러운 사람”이라며 웃기도 했다.

-머물고 계시는 곳이 아늑한 게 참 좋습니다. 나주와는 인연이 있나요.  
제가 시골 출신이라 아주 작은 공소에서 지내려고 했는



최창무(안드레아) 대주교 약력

- ▲1936년 9월15일 경기도 파주 출생
- ▲1962년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교 졸업
- ▲1963년 사제 수품
- ▲1992년~1995년 가톨릭대학교 총장
- ▲1994년 주교 수품
- ▲2000년 광주대교구장 계승
- ▲2002년 주교회의 의장
- ▲2010년 3월 광주대교구장 은퇴

요즘 상황을 보면 화가 나오. 남북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해결이 안되요. 정부가 못하는 건 민중, 종교 차원에서 해야해요. 한쪽에서는 2조, 3조 음식을 쓰러기가 나가는데 한쪽은 굶어죽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한민족이라는 게 창피하죠. 흉잡기 시작하면 답이 없어요. 정치인들은 흥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민간에게 오픈해야 해야해요. 색깔론을 들먹이고, 전부 아니면 무조건 반대로 가는 흑백논리는 안됩니다. 정부는 체면을 지키면 됩니다. 민간인까지 통제하는 건 문제가 있어요.>NNL 문제도 신성불가침이 아니라고 봐요. 부부 싸움이 어떻게 시작돼요? 처음에는 사소한 의견충돌로 시작되지만, 3년 전, 연애 시절까지 다 끄집어 내면 답이 없어요. 연애할 때

서로 알아보고 이것 저것 질문하고 그러잖아요. 벌써 떨어져 산지 3대를 넘어가요. 자주 만나고, 대화하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며칠전 방영한 'KBS 다큐스페셜-전월선' 편을 꼭 보셨으면 해요.

-사제 생활 중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나요.  
안양교도소에서 지존과 아이들이 저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그 때 가슴에 저미는 말을 들었어요. “교도소 와서야 인간 대우를 받았다”고. 얼마나 세상에서 소외당했으면 그랬겠어요. 그런데 몇개월후 그렇게 바뀐 사람을 사형시켜버렸어요. 새 사람이 된 그들, 감옥에서야 인간대우 받았다가 그들을 용서 못하는 이 사회가 정말 건전한 사회인가요. 멀찍이 살아서 돈과 권력 가지고 많은 사람들 가슴을 터치게 만들고 눈물 짜내는 사람들은 잘 살고 있어요.

-물질에 휘둘리고 있는 요즘 현대인들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지요.  
힘든 세상이지만 인간은 자정 능력이 있다고 봐요. 환

## DJ, 남북문제 준비 되셨던 분

### ‘흑백논리’ 민간교류 통제 안돼

경운동자들이 만연한 물질주의를 정화시키는 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쁜 세상에 브레이크를 잡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뽑았다면, 투표 다음에는 감독권이 있어야. 불위에서 계속 뜨거워 뜨거워만 할 게 아니라 내려와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왜 지키지 않는냐며 공약을 감시하고 비판해야죠. 세상이 흐트러진 원인을 추적하고, 바람직하지 않는 부분을 깨닫는 것만 해도 다행이에요.

-아직은 그런 자성의 기운이 남아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것마저 무감해지면 3년 더 각점이지요. 그걸 윤리학에서는 도덕불감증이라고 해요. 지식을 키우듯, 양심도 키워야 해요. 윤리적 감을 키워야 하는 거죠. 양심 마비는 본인과 사회가 만드는 거예요. 양심을 키울 수 있는 분위기가 없는 사회는 죽은 사회요, 그래서 중요한 게 교육이고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부모인데 제 아이만 최고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은 게 문제요. 내가 바라는 세상을 위해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를 생각해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직 이루고 싶은 꿈이 있으신지요.  
살보다 죽음이 가까우니 아름다운 마무리를 생각하게 되요. 요즘 부끄러운 게 임무를 수행할 때는 의식적으로라도 봉사했는데 지금은 나를 위해서만 살고 있다는 점이예요. 장기 기증, 화장 운동을 진행했어. 왜 명당을 죽은 사람이 가야합니까. 산사람은 반지하에 살고 있는데 말이죠. 후대를 위해서 우리는 결국 지나가는 사람들이예요. 유서를 써 책상 서랍에 넣어놓았어요. 위증할 때 중환자실에 데려가지 말라고 했죠. 장기 기증을 했는데 죽은 다음에는 의미가 없으니까요. 건강하게 제 몸을 돌려야 할 이유가기도 해요. 쓸모 있는 걸 남겨주려면(웃음). 심장 이식은 할 수 있지만 마음은 이식할 수 없죠. 개인 각자가 변하고, 교육을 통해 뒷받침이 되어야합니다.

/나주=김민기기자 mekim@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남동성당, 5·18성당으로 명명

### 16일 임동성당서 금경축 미사

데 주위에서 노인네가 어찌 지내려고 그러느냐며 노안성당을 추천해서 이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뒷발을 일구고 고추, 토란 등을 심었어요. 지난해 까치들이 시식을 하는 바람에 토마토는 재미를 못봤어요. 내가 선수처서 먼저 맡게 따먹고 나머지는 다 공양을 했죠.(웃음)

-사제 서품을 받으신지 50년이 되셨습니다.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교 유학중 서품을 받았어요. 평생 바라던 것이 이루어져서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었죠. 제철이 아니라, 저를 사제로 키우신 분들, 교회 공동체, 부모님에게 신세를 많이 졌죠. 50년을 대과 없이 봉사할 수 있는 게 고마운 거죠.

-2000년부터 10년간 광주교구장을 맡으셨습니다.  
25주년이 되던 2005년, 5·18이 기념행사가 아니라 영성화가 돼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공동체가 살아있는 한 길이 잊어서는 안되는 일이기 때문이죠. 단순히 원한을 가질 게 아니라 회생과 아픔을 더 큰 가치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봤어요. 남동성당을 5·18기념성당으로 명명하고 모든 성당은 5·18 때 기념 미사를 드리도록 했죠. 원한과 미움을 유산으로 남길 필요는 없죠. 이때 중요하게 생각한 게 나눔이예요. 나눔이라는 거는 사제가 아니예요. 내가 아니라 이 사회에서 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에게 오래전에 주어야 하는 것을 이제야 주는 거라고 생각해야해요.

-김대중 전 대통령과는 어떤 인연이 있으신지요.  
김 전 대통령이 옥중에서 쓴 편지를 김수환 추기경에게 보냈고, 그걸 제가 기쁨중이에 복사해 본당 신부들에게 뿌린 적이 있어요. ‘홍일야 보아라’라고 적힌 그 작은 엽서에 백백하게 적힌 글이 너무 아름다웠던 기억이 나요. 이 회창, 김대중 대통령 후보를 초청해 남북문제를 중점적으로 토론했던 적이 있는데 김 대통령은 남북문제에 대한선 완전히 준비된 분이셨어요.

-천주교 민족화해위원장으로 활동하셨습니다. 요즘 남북관계를 어떻게 보시나요.

# ‘철의 여인’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 타계 슬픔의 영국 “위대한 지도자 잃었다”

## 박근혜 대통령 조의 표명

8일(현지시각) 오전 뇌졸중으로 숨진 마거릿 대처(87) 전 영국 총리의 장례식이 국장에 준해 치러질 것이라고 영국 총리실이 발표했다.

총리실 대변인은 이날 “여왕의 동기에 따라 대처 전 총리의 장례식은 국장에 준하는 장례 의식(ceremonial funeral)으로, 런던 세인트폴 성당에서 거행된다”고 밝혔다. AFP통신이 전했다.

장례식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그는 또 “유가족의 뜻에 따라 장례식을 준비하고 장례식에는 대처 전 총리와 관련 있는 광범위한 인사들을 초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례식이 끝나고서 시신은 화장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대처 전 총리의 대변인인 팀 벨경은 “대처 전 총리가 오늘 아침 뇌졸중으로 운명했다. 가족들이 밝혔다”며 “대처는 영국의 가장 훌륭한 총리 중 한 명이었다”고 평가했다.

영국 왕실은 이날 비보에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크게 슬퍼했으며, 유족에게 위로의 뜻을 전달했다고 발표했다.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위대한 지도자이자 위대한 총리, 위대한 영국인을 잃었다”고 애도했다.

영국 최초의 여성 총리를 지낸 대처는 1979년부터 1990년까지 세 차례나 총선을 승리하며 이끌며 ‘철의 여인’으로 불렸다. 노동당 내각이 의회에서 불신임결의를 당하고 해산된 직후인 1979년 총선에서 승리함으로써 새 영국 최초의 여성 총리에 취임하였다.

집권 후 긴축재정을 실시해 영국의 경제



부흥을 이끌고, 1982년에는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포클랜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정치적 역량을 과시했다.

과감한 사유화와 노조의 와해, 교육·의료 등 공공분야에 대한 대폭적인 국고지원 삭감 등 획기적인 정책을 추진한 ‘대처리즘’으로 찬사를 받기도 했지만, 독단적인 정책 운용으로 비판을 받기도 했다.

1990년 유럽통합에 반대하다가 당 지도부의 반발에 부딪쳐 자진 사임했으며 1991년 5월 정계를 은퇴했다. 1992년 남작 작위를 받고 상원의원으로 활동을 재개했으나 10여년 전 뇌졸중 증세로 대의 활동을 자제했으며 지난해에는 방광 질환으로 수술을 받기도 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9일 대처 전 영국 총리에게 조의를 표했다. 박 대통령은 “대처 전 영국 총리의 갑작스러운 서거로 영국 국민들이 위대한 지도자를 잃게 돼 애석하게 생각한다”며 “대처 전 총리는 영국의 경제를 살리고 1980년대 영국을 희망의 시대로 이끄셨던 분”이라고 애도했다. /연합뉴스

## 중 신종 AI 바이러스 韓 연관성 제기

### “한국 거친 철새 유전자와 결합 생성” 주장

중국이 신종 조류 인플루엔자(AI) 감염병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한국과의 연관성을 제기하고 나서 주목된다.

중국과학원 병원(病原)미생물과 면역 중점실험실 연구원은 “H7N9 바이러스의 8개 유전자 토막 가운데 H7계열 토막이 저장(浙江)성 오리떼에서 검출된 AI 바이러스였다”면서 “이 바이러스의 근원지를 추적한 결과 한국 양생조류에서 검출된 AI 바이러스와 근원이 같았다”고 밝혔다. 중국 경화시보(京華時報)가 9일 전했다.

그는 “H9N2 바이러스(저병원성 AI)는 상하이(上海), 저장, 장수(江蘇) 등지의 오리떼가 근원지이며 저장(長江)삼각지역에서 유전자 결합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양생 조류가 한국을 거쳐 이동하는 과정에서 창장삼각지역 오리떼와 유전자 결합을 일으켜 신종 AI 바이러스가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가 학계가 이번 신종 H7N9 AI 감염병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한국과의 연관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상하이시는 60대 남성이 신종 AI에 감염돼 숨졌다고 전날 밝혔으며 중국에서 신종 AI로 인한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늘었다.

장수성에서 2명의 감염 환자가 추가로 확인돼 총 감염자 수는 전날까지 24명(상하이 11명, 장수 8명, 저장 3명 안후이(安徽) 2명)로 증가했다. /연합뉴스

# MBA Business School / JD Law School 獎學生 第4期生 募集

美國 TOP 10 頂上圈 難關에 果敢히 挑戰하는 靑年! 찾습니다

## 民族의 尊嚴과 榮光을 위하여

- 碧峯(병봉)獎學會 設立에 부치는 마음 -

本人은 碧峯이란 號를 가진 大韓民國 國民의 한 사람으로서, 韓國에서 태어나 現在는 日本에 居住하고 있는 在日僑胞입니다. 異國에 살면서 恒常 생각했던 點은 祖國이 國際社會에서 尊敬받고 榮光스러운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過去 우리 民族은 戦地가 어려운 酷毒한 屈辱을 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또다시 그런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祖國을 더욱 繁榮시키고 富強한 國家로 發展시켜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祖國이 國際社會에서 尊敬받아야 하며 正心성의 面에서도 높은 評價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民族의 크나 큰 希望을 確實하게 또한 빠른 時日內에 達成하려면, 國際的으로 活動할 有能한 人材의 輩出이 가장 時急하게 해야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本人은 本人의 所信에 따라 지금까지 Business 世界에 獻身하여 왔고, 이제는 國際的인 感覺을 지니고 國際社會에서 堂堂하게 活躍할 젊은이를 育成하는 事業에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비록 적은 힘이나마 이 事業에 盡力하는 것이 本人이 民族을 위해서 할 수 있는 最上의 길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 趣旨에서 碧峯獎學會를 設立, 2009年 學期부터 民族의 尊嚴을 드높이는 獎學事業을 具體的으로 推進하고 있습니다. 本人의 뜻이 비록 큰 바다의 작은 물 한방울에 지나지 못할지라도 民族과 祖國의 發展에 보탬이 되던 더 없는 기쁨입니다. 이것이 바로 碧峯獎學會의 趣旨이며 精神입니다.

獎學會 創立者 碧峯

## ■ 選拔概要

- 募集人員 : 年間 3명(MBA 課程 2명, JD 課程 1명)
- 獎學金
  - MBA 課程은 1年에 美貨 \$40,000(2년간 \$80,000)
  - JD 課程은 1年에 美貨 \$40,000(3년간 \$120,000)
- 應募資格
  - 美國 上位 10位圈內 大學의 MBA 課程 또는 JD 課程에 合格한 者
  - 大學 全學年 成績이 平均 B學點 以上인 者
  - 選拔前 當該年度부터 獎學金을 受惠받을 수 있는 者

## ■ 提出書類

- 履歷書 ○ 大學 成績 證明書 ○ 保護者 및 世帯主의 所得(納稅)證明書
- MBA 또는 JD 課程 合格證 ○ 指導教授 또는 職場上司의 推薦書
- 自己紹介書(進學動機 및 將來의 希望, A4用紙 3매 以內)
  - \* 모든 英文 書類는 韓國語 翻譯本을 添附 바랍니다.

## ■ 接受處

- (우편번호110-776) 서울特別市 鍾路區 慶雲洞 89-4 SK허브 101-713號 統一日報社 서울支社內 碧峯(병봉)獎學會

## ■ 接受期間 및 銓衡方法

- 接受期間 : 2013年 4月 29日 ~ 5月 3日(登記郵便은 5월 3일 17:00까지 必着)
- 第1次 전형 : 書類審査(1次 合格者에 限하여 2次 전형 日時와 場所를 通知)
- 第2次 전형 : 選考委員 面接(5月 9日 實施 豫定)

- 第3次 전형 : 選考委員會에서 最終 選定者 確定
- 最終合格者 發表 : 2013年 5月 10日 豫定

## ■ 其他

1. 獎學生 選拔은 德望있는 분들로 構成된 選考委員會에서 客觀的으로 進行되며, 提出된 書類는 返還하지 않습니다. 獎學生 募集과 關聯한 自舍한 事項은 碧峯獎學會의 홈페이지(http://www.byeokbong.or.kr)를 參照하시거나, 서울事務所 李光衡 事務所長 (☎ 02-725-4161, lkh3849@hanmail.net)으로 問議하시기 바랍니다.
2. 支給되는 獎學金은 辨濟義務가 없습니다.
3. 家計에 餘裕가 있는 家庭의 子女분 혹은 他 獎學金 申請이 가능한 學生은 應募를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家計가 어려운 學生으로서 多 強한 向學心을 갖었고 使命感에 넘치는 젊은이를 當 獎學會는 應援하고자 합니다.

【제1기 병봉장학생】	【제2기 병봉장학생】	【제3기 병봉장학생】
조군호 (Columbia Law School)	곽상협 (Harvard Law School)	이보람 (Harvard Law School)
김재인 (Harvard Law School)	조태호 (Univ. of Michigan Law School)	장원일 (Columbia Law School)
최유진 (Cornell Univ. Law School)	유영호 (Wharton School MBA)	배수현 (Harvard MBA)
우재영 (The Univ. of Texas at Austin MBA)	배석진 (Univ. of Chicago Booth MBA)	정주현 (Harvard MBA)
강혁인 (U.C. Berkeley Haas MBA)		

# 碧峯獎學會

會長 김현중 (전 통상교섭본부장, UN대사)